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소식

◆ 모임

1. 새가족 환영회 / 26일(주) 오후 12시 802호
2. 신앙강좌부 / 26일(주) 오후 12시 101호
3. 권사회 월례회 / 26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4. 교구위원회 헌신예배 찬양연습 / 26일(주) 3부 예배 후 본당
5. 디자인팀 월례회 / 26일(주) 오후 1시 30분 802호
6. 서울교회 봄맞이 대청소 축제 / 4월 1일(토) 오전 10시 101호

◆ 알림

1. 101호 /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2. 102호 /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3. 403호 /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506호 / 비전2030 도고팀 : 주일 오후 1시-3시
6. 601호 /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7. 602호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오후 2시
8. 603호 /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9. 606호 / 신혼가정부 : 주일 오후 12시 30분-2시
10. 609호 /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11. 701호 /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2. 702호 /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3. 706호 /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4. 802호 / 영여성경부 : 주일 오후 10시 10분-11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 15분-12시 55분
15. 세례식 신청 - 금년도 두 번째 세례식인 4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4월 16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 4월 1일(토)
 - *입교와 유아세례 교육: 4월 9일(주일) 낮 12시 20분 602호
 -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16. 이번주 심방 일정 / 2-3, 2-6, 3-3, 3-5, 5-6, 6-6, 6-8다락방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야),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 이삭, 비스타파, 사자,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핀,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툼, 수란촌(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Tel.558-1106 / Fax.558-210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 마가복음 10:35-45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리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돈과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사는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 우리에게 좌편 우편 자리를 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37). 이런 그들의 요청은 그가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장하시는 것은 종말에 있을 미래적 사건이었고 그 종말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여정임을 세 번(막8:31-38, 9:30-32, 10:32-34)에 걸쳐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민지배의 현실과 유대 종교 현실 등의 거대한 죄의 세력이 사람들과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보이고 이것 때문에 죽음으로 도전하려 하시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누릴 영광만 아른거려나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자살을 최고, 행복도 최저, 출산을 최저라는 참담한 현실이 우리에게 하는 경교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십자가 감당하자는 말씀입니다.

2. 분노하는 열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들의 자리를 은밀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열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공정성 투명성 등을 이유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의와 분노에 대하여 주님은 인정하시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내면에 자기들의 기회와 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시기과 질투가 있음을 보셨습니다. 잠16:2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내면을 지배하는 탐심과 시기심은 주님의 눈앞에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은 진실이 그분 바탕이어야 하고 그럴듯한 명분과 논리로 자신을 감추거나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자위에 있는 사람이 세도부리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사람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서로 종이 되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소위 흔히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는 피 흘리려 간다. 내러놓으려 간다, 십자가 지러 간다, 죽으려 간다, 섬기려 간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리와 권세를 탐하지도 말고 피 흘리고 섬기고 내러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만 따르는 진정한 예수 제자로 살아야 하셨습니다. ‘절반의 제자는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이며 하늘의 위로와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3. 목적을 향해 살아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 세상의 죄 많은 인생들을 섬기려는 것이요 그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함이다’(45)라고 하셨습니다. 대속물은 고전 그리스어에서 노예들을 해방시켜줄 때 노예의 주인에게 지불하는 노예의 몸값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 향한 삶의 결심이 언제나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대로 사셨고 사명위해 생명 바치셨고 보내신 목적이 이루신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적 시련을 당하여 고난을 겪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약속하셨습니까? 말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교회,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 희생과 헌신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되기를 서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마음과 헌신서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원이 우리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어 그 일을 위해 매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삽시다.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요 성도답게 존재하는 것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주님의 잔에 가까이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져야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균림하지 말고 섬기고 희생하는 중을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목적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시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오치열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이계홍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사 53:5-6...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 찬 송14(1, 4절)... 다 함 계
 * 신앙고백 다 함 계
 * 성서 교육128(사순절5)... 다 함 계
 * 송 영 4 다 함 계
 기 도 말 은 이
 찬 송338... 다 함 계
 성경 봉독막 10:35-4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다 함 계
 봉헌 다 함 계
 * 봉헌송634... 다 함 계
 * 봉헌기도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다 함 계
 설 교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손달익 목사
 * 찬 송341... 다 함 계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계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예배로 부름사 53:5-6... 인 도 자
 * 신앙고백 다 함 계
 *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기 도 말 은 이
 환영과 축복 찬 양 팀
 교회 소식 인 도 자
 성경 봉독막 10:35-45...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손달익 목사
 결단의 기도 다 함 계
 봉 헌 다 함 계
 * 봉헌기도 설 교 자
 * 파 송 찬 양 팀
 * 축 도 설 교 자
 * 후 주 찬 양 팀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조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찬 양 예 배

-교구위원회 헌신예배-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서은석 장로	김형상 집사

목 도 다 함 계
 성 시 고전 4:1-2 인 도 자
 찬 송 94 다 함 계
 기 도 말 은 이
 찬 송 210 다 함 계
 성 경 시 16:1-6 이겸손 집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아름다운 나의 기업” ... 손달익 목사
 특 송 교구위원회
 * 찬 송 320 다 함 계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계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박정희 권사
II 오후 7시	김익환 목사	김순진 권사

성 경 요 15:1-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참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 ... 김익환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박수강·김복희2·신아령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찬 양 팀
 설 교 김익환 목사

서울가족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시 피아니스트: 홍혜란
 설 교 손달익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701	375명	2,041명	490명	1,664명